

##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혜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파견기간	4개월(한학기)
귀국여부	'아니오'인 경우 귀국예정일을 알려주세요.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벤쿠버에 위치해있고 캐나다라인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면 쉽게 학교를 갈수 있습니다. 규모는 아담한 편이나 깔끔한 시설이라서 공부하기 쾌적하였습니다. 특히 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근처 ymca가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처음에 레벨테스트를 받고 반 배정을 받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한 학기 동안 두 세션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 세션에 선생님 두분이 들어오시고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개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바인더랑 형광펜 등 필수로 필요로하는 준비물이 있는데 벤쿠버 시내에 나가면 쉽게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매일매일 내주시고 할만하게끔 내주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닝 리딩 화이팅을 주로 배우고 클래스메이트들을 묶어서 스피팅 수업도 많이 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인터넷서설 오피스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달 마련되어있어서 잘 찾아서 미리 신청하면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미니골프, 등산, 외국음식 체험해보기 등등 이 있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원래 레인쿠버라고 할만큼 비가 많이 오는 벤쿠버인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덕분에 더 즐겁게 다닐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레인부츠나 우비를 챙기지 않았고 우산으로 충분히 잘 다닐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쌀쌀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매우 안전합니다. 교통도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이 수시 운행해서 다니는데도 길을 잃을 위험이 별로 없고, 치안이 정말 잘 되어있고 여성들을 위한 매너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길이 좀 황하지만 안전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0 ) 외부 숙소(0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랑가라 오피스를 통해서 두달은 홈스테이를 살았고 두달은 룸을 렌트해서 살았습니다. 워낙 다문화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있는데 저는 필리피노 캐네디언의 집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입맛이 맞지 않았고, 홈스테이 위치도 매우 좋은 편이 었지만 다운타운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룸렌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숙소 모두 좋았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0 )  외부식당 ( 0 ) 직접 요리 ( 0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삼시세끼를 다 줍니다. 이 식사가 패이에 속해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필리핀 음식을 먹는 것 보다 다른 음식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홈스테이 이후에 제가 직접 요리 해야하는 구조의 룸렌트로 옮기게 되어서 제가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나가서 사먹기도 했습니다.</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저는 먼슬리패스라고 한달동안 스카이트레인과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패스권을 사서 다녔습니다. 홈스테이에 살때는 버스를 타고 랑가라를 가야했고 룸렌트 때는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했었어야 했어서 유용하게 잘 먼슬리패스를 사용하였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90만원	Ana 일본 경유해서 갔습니다.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p> <p>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p>준비물 (바인더 형광펜 속지 등등) 가끔 책을 사라고 합니다.(한권에 만원 정도)</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p>저는 벤쿠버 관련된 카페를 통해서</p>	

	한화손해보험 저렴한 것으로 9만원 보험 들어서 갔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한달 800달러) 2달=160만원 룸렌트(460달러) 2달=92만원	
식비	한달 200달러 정도(룸렌트 살때)=40만원	
교통비	한달에 91달러(먼슬리 패스)X4=364달러(35만원)	
책값	3만원(3권 정도)	
기타1	여행 록키(230달러=20만원) 씨애틀(200달러=20만원) 휘슬러(200달러=20만원)	
기타2	기념품(50만원)	
기타3		
합계	550만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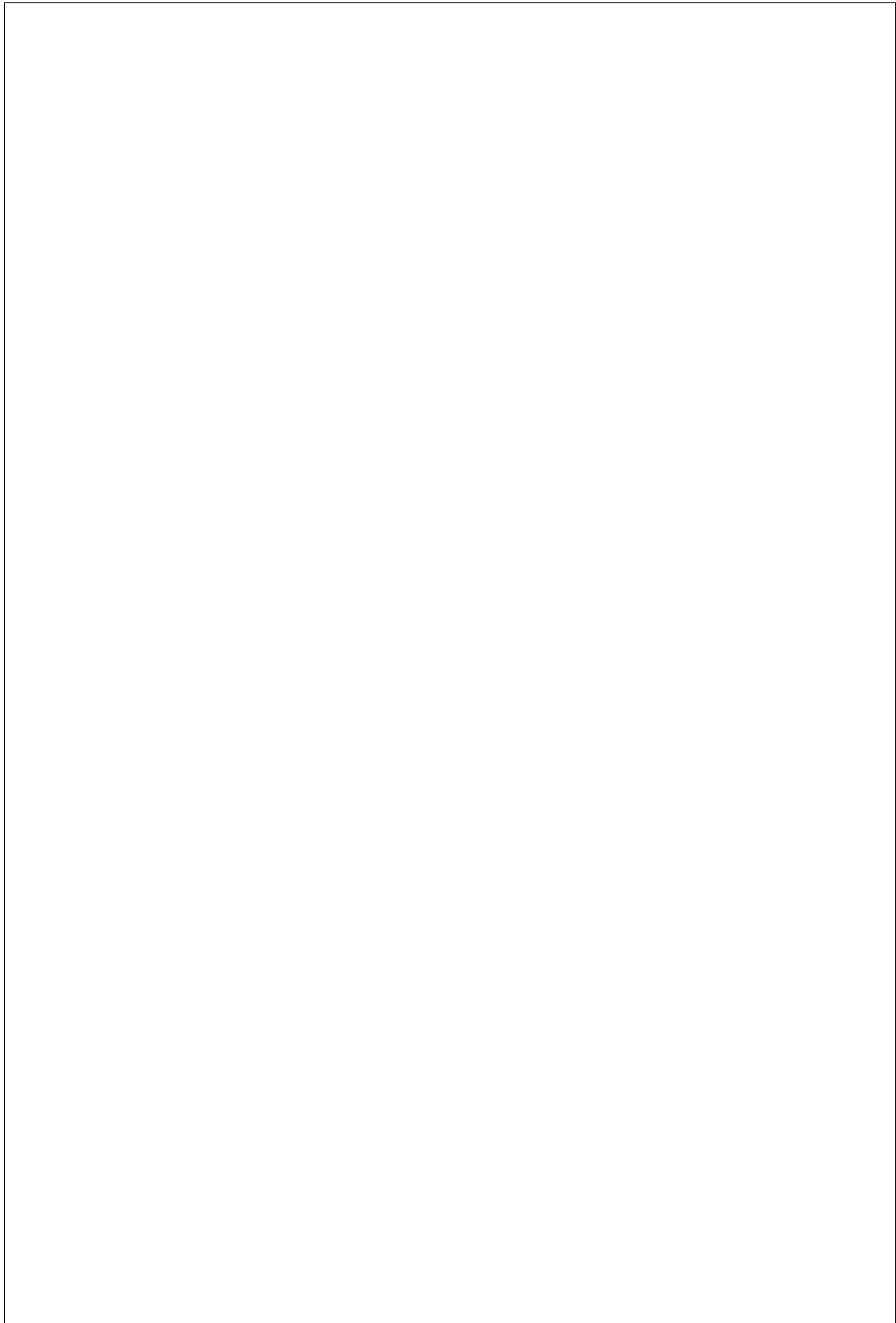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꼭 핸드폰 유심칩을 미리 안사기도 됩니다. 현지 가서 통신사 골라서 해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밤에 쌀쌀하니까 야상 같은 따뜻한 옷 하나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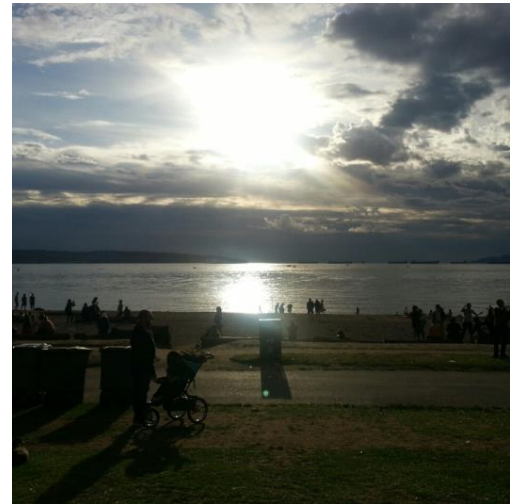
한 학기 동안 밴쿠버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과 과제 이외에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아까워서 학교를 마치고라도 스텐리 파크에 자전거를 타기도 했었고, 봉사를 하러 가기도 했었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갈수 있는 여행지를 찾아 다니면서 여행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개월이 지난 지금 보니 매우 뿌듯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온 만큼 외국인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노력했었는데 립프프로그램이다 보니 캐네디언 친구보다 중국, 일본, 비영어권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 친구들과 매우 정이 많이 들고 좋은 친구가 되어 뿌듯합니다. 한학기 동안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돌아온 것 같아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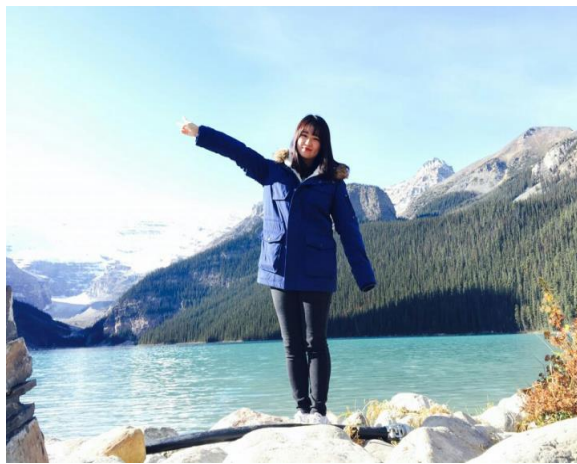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모든 세션이 끝나고 클래스메이트들과  
식사하러 갔을 때 입니다.



잉글리쉬베이 , 다운타운 근처 바다인데  
일몰이 유명합니다.



레이크 루이스, 록키산맥에 있는 유명한  
호수입니다.



휘슬러 (동계올림픽 개최 한 곳)



두달간 살았었던 홈스테이



시애틀 가서 먹은 크랫팟입니다.